

## 동양선교교회

#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열번째 글

## 서울의 국민일보 직접 인터뷰

### 홍민기목사 “동양선교교회 안 간다”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여섯 명의 장로들이 각종 불법, 부정행위를 총동원, 모셔오려 했던 서울 함께하는교회의 홍민기 목사가 지난 17일 공식으로 “동양선교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국민일보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 목사는 그동안 3번이나 “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목사는 이어 “이런 결정은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홍 목사 :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이라면 나 또한 총회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불법 지적**

그러나 홍목사는 지난 7월 25일 열렸던 임시공동총회에서 일어난 불법성을 지적, 동양선교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회의 과정과 불법성”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국민일보 기자에게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또한 총회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애들 문자대로 “얼마나 쪽팔리는지” 말로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3번이나 “안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한마디 없이 우리교회 후보에 “홍민기 목사님의 오시는 길이 평탄하고 시간이 단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벌써 3주째 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교인 기도”라는 제목을 달고 말입니다.

**“여섯 명의 장로들은 교인들을 기만, 우롱 하지 말라”**

**홍 목사 안 온다고 3번이나 답변 불구, 기도하자 후보 광고 계속**

박석재를 비롯한 여섯 명의 장로들은 전체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홍목사님이 우리교회 담임목사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이들 여섯 명의 장로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교인들의 일입니다. 따라서 일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그 때, 그 때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교인 모두가 기도제목으로 삼고 합심으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로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채 기도만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실에서는 홍민기 목사 특집방송을 만들어 매 주마다 주일 대예배시간에 방영하면서 그를 우상화했으며 어느 때는 십자가위에 홍목사의 얼굴을 접목시켜 마치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임시 공동총회입니다. 홍목사가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는데 그 공동총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인 우리교회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 **“교회 나오지마라” 협박편지, 수십명 가드 동원, 임동선목사 예배참석도 불허 전체 3분의 2가 반대위해 일어났는데도 찬성 392명, 반대 86명, 통과 선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공동총회 날 교회에 오지도 말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말며 만일 들어오면 경찰에 체포될 것이다”는 협박 편지를 미리 우편으로 보내고 당일에는 수십 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 원로 목사님의 출입도 금지 시켰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모두 교회당에 들어 올 수 있었으나 사회를 맡은 박석재 장로는 반대하는 세력인 18명의 이름을 수차례 영상으로 띄우면서 모두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홍목사의 설명대로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3분의 2정도가 일어났는데도 아랑곳없이 86명이라고 했고 나머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392명이 찬성, 통과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은 DVD로 제작돼 교인 여러분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장로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회의진행이 그것도 바로 우리교회에서 일어났으며 그 공동회의 내용이 홍목사를 통해 전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슬픈 일입니까?

## **홍목사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다” 지적 당회, 제직회 안열고, 징계, 면직, 해산, 중단 등 멋대로 운영**

홍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교회의 현실에 대해 “동양선교교회는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준민 목사가 떠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여섯 명의 장로들은 우리교회 헌법에 의거, 최고의 치리기구임을 강조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또 헌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교인들을 징계하고 심지어 같은 당회원 장로인데도 반대하는 당회원 장로를 징계,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하면 직원들도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러명을 면직시켰습니다. 어렵게 조직된 3개의 여선교회도 회장이 반대파라면서 하루 아침에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들 여선교회가 어려운 상황인 교회를 위해 마련한 심야 기도회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불을 끄고 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나마 중단됐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제직회를 매월 1회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래 두 달 동안 아무런 공고 없이 제직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공동총회는 그나마 열지도 못했습니다.

공동총회를 열지 못했으니 예산이 통과되지도 못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취임을 위한 공동총회의 가결도 없었습니다. 그런대도 그들 장로들은 임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자기들 맘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8월 15일 주보부터 임동선 원로목사님 이름도 사전 고시 없이 빼버려 돈 없다며 사례비도 중단, 방송실 오오셀 집사에게 월 3,500달러 지급**

지난 8월 15일 주일 주보에 그동안 고정으로 만들어져 인쇄돼왔던 원로목사란이 빠졌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박석재 등 여섯 명의 장로들은 이미 수개월전에 원로목사실을 패쇄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보에서 원로목사님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원로목사는 당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헌법에 따른 헌법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로들이 사전 고시 없이 슬쩍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에 대한 사례비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박석재 장로가 다른 교회에서 데려온 방송실의 오오셀 집사에게는 한달에 3,500달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집사 이전의 송기형 집사는 정통회회원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1천 달러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끝나고 난 뒤 몇차례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여섯명의 장로들은 당회를 장악, 전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그야말로 저희 멋대로 교회를 치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목사가 설명한대로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 **"옛 영광만 있지 기능이 없는 교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지난 10개월동안 전권을 휘둘러온 6명의 장로들은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그리고 최근에 이들과 합세한 이영송 장로. 이들은 지금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 그대신 이렇게 된 것은 원로목사 때문이며 정통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여러분!

임동선 원로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배를 보러 교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고 있으며 원로 목사실이 패쇄 돼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의자하나 없습니다. 이들 장로들은 원로목사님과 마주쳐도 인사를 앓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정통회 회원이라면 거의 대부분 헌법에도 없는 "교인 자격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인 권사의 경우, 정통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20년 여를 일해온 오후학교 Head Cook 일을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오정자 권사도 정통회회원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도와주는 일마저 "중단하라는 윗 쪽의 지시"를 받고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당회의 막강한 힘에 대항해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가대를 제외하고 단 한명의 정통회 회원들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박석재를 비롯한 여섯 명의 장로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로목사님과 정통회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 지경으로 몰아 온 것은 모두 이들 여섯 명의 책임입니다.

성도여러분

교회안에서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여섯 명의 장로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그 책임을 직접 따져야 합니다.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정말 눈물나는 표현입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속에서 어느때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었습니까?

제직회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도 정상적으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교회안에서 만날때 따져야 합니다. 책임을 당신들이 지라고. 그리고 그리 못하겠다면 아예 홍성식 장로처럼 사표를 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든 책임을 져야하며 그 책임은 박석재를 비롯한 여섯 명의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국민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전문입니다.

## 홍민기목사 인터뷰 “동양선교교회 안간다”

[미션라이프] 홍민기(39세) 목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했다. 홍 목사는 17일 오전 서울 신천동 함께하는교회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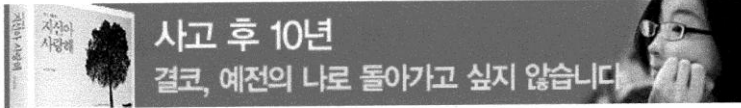
인터뷰에서 홍 목사는 최근 수 개월간 동양선교교회 청빙요청과 심경을 비교적 소상히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도 다른 국내외 교회의 청빙이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동양선교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는 흔들렸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유는 이렇다. “동양선교교회는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힘든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4차례 동양선교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최초의 설교는 지난 5월, 청소년 집회에서였다. 교회 개척 3년만에 가진 안식월 기간에 방문했던 것이다. 이때 홍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아들(그는 12살 때 도미해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다.)로서 아픔을 간증했다. 역시 이민 교회의 교인들인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큰 호응을 보였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http://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http://www.klifeusa.com) 입니다.



### 홍민기 목사 인터뷰 "동양선교교회 안간다"

[2010.08.17 15:24]

+ 확대 - 축소 



함께하는교회 홍민기 목사는 17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이계 그만 자를 뇌주셨으면 좋겠다'며 청빙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해인 기자

[미션라이프] 홍민기(39) 목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목사는 17일 오전 서울 신천동 함께하는교회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홍 목사는 최근 수개월간 동양선교교회 청빙 요청과 심경을 비교적 소상히 털어냈다. 그는 "예전에도 다른 국내외 교회의 청빙이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동양선교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는 흔들렸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유는 이랬다. "동양선교교회는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옛 영광만 있지 교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힘든 교회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양선교교회 당회에서는 강준민목사 이후 공백상태인 담임목사직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기도 후 그는 "노"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때가 6월 첫째 주 즈음이었다. 그러자 동양선교교회 장로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찾아왔다. 더 기도해보라고 요청했다. 홍 목사는 기도 후 또 다시 두 번째 편지에다 "노" 라고 썼다. 또 다시 장로들이 한국으로 찾아 왔다. 장로들의 요청에 다시 "다시 기도하겠노라"고 했다.

홍 목사는 이에 대해 "기도를 더 해보겠다고 하니가 장로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하지만 간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오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이렇게 부연했다.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 친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의 편지를 쓴 뒤 함께하는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교인들도 이미 어느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지난 달 25일 동양선교교회 임시 공동회의에서는 홍 목사를 담임목사로 공식 결의했다. 하지만 동양선교교회는 공동회의 과정과 관련한 불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며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또한 총회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총회 이후 그는 세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역시 “노”라는 내용이였다. 그는 “함께하는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많이 약하지만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신 사역”이라며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움직이는 풍토는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동양선교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교회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갈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하는교회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편치가 않다”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다. “제 바람은 동양선교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성도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임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김성원 기자.>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http://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http://www.klifeusa.com) 입니다.